

부르신 곳에서

멕시코 이지민 김예은 선교사

선교서신 <제 12호>
2022년 10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골로새서 3:15)

사랑하는 교회와 동역자님들께 문안드립니다.

선교지에서의 10월, 한 달 동안의 삶을 동역자님들과 함께 나눕니다. 10월에도 귀한 손님이 저희를 찾아와 주었습니다. 신학대학원 동기인 김재광 강도사의 방문, BUAP(Benemerita Universidad Autonoma de Puebla) 어학당에서의 생활, 그리고 멕시코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게 된 저의 생일을 함께 축하하고 기뻐하는 일상을 보냈습니다.

| 신학대학원 동기의 방문

산들이 형형색색의 옷으로 갈아입고 자신들의 아름다움을 뽐내는 10월이네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이 가을인데, 특히, 한국의 가을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듣기로는, 3년 만에 학교에서 가을 운동회, 체육대회 등이 열리고, 교회 행사들도 다시금 진행되고 있다는데 일상의 행복을 되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아름다운 10월에, 참 귀한 친구가 저희 부부를 방문해주었습니다. 신학대학원에서 3년 동안 함께 공부하고, 교제를 나눈 김재광 강도사입니다. 신대원 시절,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 터키 지역으로 교수님과 함께 떠나는 현장 수업도 같이하며 친구로서의 우정과 동역자로서의 비전을 공유했던 좋은 친구입니다. 멕시코를 비롯하여 중남미 나라들의 선교 현장을 방문하고 여행하는 기간 중에 저희 부부와도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간의 정을 나누고 또 쌓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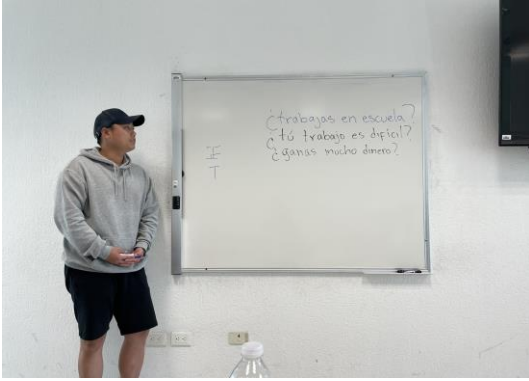
2018년 터키에서



2022년 멕시코에서

| BUAP 어학당에서의 생활

저희 부부는 11월 말까지 진행되는 어학당의 스페인어 기초 코스를 열심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문법과 어휘를 익히며 듣기와 말하기 연습도 매시간 진행하는 수업의 구성이 참 좋습니다. 수업 이후 아내와 함께 BUAP의 캠퍼스를 걷다 보면, 10여 년 전, 한국에서 함께 대학 생활했던 추억이 떠오릅니다(저희 부부는 외대 루마니아어과 선후배 사이로 같은 시기에 학교에서 공부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는 싱글이 아닌 부부로서 이렇게 선교지에서 또다시 함께 공부하고 있으니, 감회가 참 새롭습니다.



BUAP 어학당

캠퍼스 안에서 현지 친구들과 잠시 소통을 해보면, 한국을 좋아하고 궁금해하는 이들이 참 많음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이 땅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길에 우리의 삶이 이곳의 영혼들을 위해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기를 늘 바라고 소망해 봅니다.

| 멕시코에서 처음 맞이하는 생일

10월은 제 생일이 있는 달입니다. 제 생일이 특별한 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늘 특별한 날로 주위의 좋으신 분들이 만들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 생일은 멕시코에서 처음 맞이하는 생일이었는데,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께서 연락을 주시고 또 축하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특히, 전날부터 생일상을 준비하느라 아내가 애를 많이 썼는데 그 마음이 정말 고마웠습니다. 선교지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지만 그래도 문득 문득 마음 한구석에 타향살이로서의 외로움이 왜 없겠습니까? 저보다 아내가 더 크겠지요. 그렇지만, 혼자가 아닌 둘로, 부르신 곳에서 서로의 힘과 위로가 되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내가 차려 준 생일날의 밥상은 감사와 위로, 행복이 넘치는 상이었습니다.



아내가 준비해 준 생일상

지난 2022년 4월 29일, 이곳 멕시코에 첫 발을 내딛고 이제 만 6개월이 지났네요. 여전히 부족하고 배울 게 많은 선교사 부부지만 그래도 이 땅에서의 삶을 잘 살아내고 있는 아내와 저를 칭찬하고 싶습니다. 더디고 느리더라도 인내하고 기다리며 끝까지 주님 주신 사명을 잘 받들어 섬길 수 있도록 고국에 계신 우리 동역자님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제목

1.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동역자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소서.
2.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소서.
3. 그리스도 안에서 늘 한마음 한뜻 되는 가정되게 하소서.